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요새 농담 중에 ‘죄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이라는 게 있다. ‘감옥에 가면 인터넷을 못 쓰게 하니까’가 답이라고 한다.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 됐다. 인터넷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게 돼 버린 것이다.

이렇듯 삶에서 없으면 못 살게 되어 버린 인터넷을 사람들은 어떤 용도에 쓸까? 많은 이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용도는 단연 SNS, 즉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사용이다. 한때 대세이던 트위터는 시들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페이스북은 아직 여전히 인기를 누리지만, 대체는 시각적인 소통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인스타그램 등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일종의 집단적 소통 중

사실과 소문

독중에 걸린 건지도 모르겠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고립된 주인공 맷 데이먼이 일체의 정보를 접할 방법이 차단된 상태에서 취향에 맞지도 않는 디스코 음악이라도 열심히 듣는 장면은 그래서 수궁이 간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금단현상과 유사한 게 아닐까?

자연스레 SNS는 개인적 소통의 채널을 넘어서 여론이 모이고 형성되는 길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실과 소문이 섞여서 온갖 음모론도 돌아다닌다. 요즘 나도는 정체 모를 글 중에 일부는 상식과 달라서 우리를 혼란에 빠트린다.

제목부터 생경하고 강하다. 예를 들면, ‘늑치를 마시느니 갈래 잔 물을 마시라’,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배추김치를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두부 먹으면 몸이 썩어 죽는다’, ‘암력밥술에 지은 밥은 죽음의 물질이다’ 등등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공포심을 타고 빠르게 전파되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내세우는 사례들은 대부분 샘플 크기가 작아서 통계적 처리의 관점으로는 무의미하다.

얼마 전 다시 회자된 음모론의 백미는 미국의 아폴로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 장면이 조작된 거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 주

장은 꽤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인데, 냉전시대 구소련의 스푸트닉 우주선 발사로 자존심에 상처 받은 미국 정부가 조작을 감행했다는 의심에서 출발했다. 그 뒤로 과학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덧붙여 가며 진화했고 여러 버전이 출현했다.

최근 버전은 유명한 영화감독인 스티븐 리 큐브릭이 사망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동영상이었다. 조작된 착륙 동영상을 제작한 실행자가 자기였다고 큐브릭이 고백하는 인터넷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큐브릭의 가족과 지인들의 관찰과 사실 확인에 따르면 비웃힌 의모를 가진 배우를 출연시켜 연출한 허위 인터넷 보도 보인다고 한다.

‘좋아요’ 기능이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SNS의 특징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결국 사용자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실과 소문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비판적 시각과 검증의 잣대로 무장해야 하고,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논리적 생각의 힘에 기대어 홀로 항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 아테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비밀을 수와 기하학에서 찾았다. 수학은 변덕과 궤변에서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어서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믿었다.

반면에 현대의 우리는 수(數)에 치여 산다. 아무런 의미 없는 방대한 데이터에 둘러싸여 헤매고, 넘치는 통계의 홍수 속에서 서로 다른 해석들의 충돌을 목도한다. 그러니 제멋대로 보이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질서와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는 관점의 출현은 얼마나 놀라운가.

빅데이터와 수학의 결합은 그래서 경이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음모론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뿐더러, 종종 시대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준다. 플라톤이 이미 간파했던 것처럼 수와 논리는 감성적 사고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한계를 보완하고 설득력을 더하는 동반자로 기능한다.

이미 우리 곁에 와 버린 빅데이터 시대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조차 바꾸어 버렸고 구글 같은 데이터 회사가 무인자동차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를 이끌어 내는 능력은 이제 21세기의 경쟁력이 되었다.

종교칼럼



정세완
원불교 능성교당 교무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병신(丙申)년의 천간은 병입니다. 병은 오행으로는 불이며, 계절로는 여름이고, 색상은 적색입니다. 그래서 병신년인 금년을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지혜롭습니다. 특히 붉은 원숭이는 지혜로우면서도 정열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래서 붉은 원숭이의 해에 태어나는 아이는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반면 지혜롭고 정열적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과 게으름입니다. 자만과 게으름은 지혜와 열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 타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밤시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초심을 실천하자

또한 지혜와 자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늘이 짙은 것처럼 말입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돈은 패가망신의 주머니가 됩니다. 마치 칠 잎은 아가리 칼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상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바른 뒤에야 모든 물질들은 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성인 요리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제공 하는 도구로 활용되듯 말입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많은 소망들 중에 어김없이 돈 벌이 벌고, 건강하며,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기를 태양을 보며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과 명예와 모든 권력은 내가 잠시 이 세상에 나와서 이용하다가 가는 도구입니다. 본연이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삶을 사는 전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에 원불교 경산 종범 사님은 신년법문에서 초심을 실천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다른 어떤 계획보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제일 순위가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원숭이의 해에 우리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신년설계 중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세계에 공을 들이는 계획은 어떠신가요? 2030년이 되면 암과 뇌질환 환자보다도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종합병원의 척추질환자의 치료방법에는 정신치료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돈과 명예와 권력도 나의 삶에 보탬이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새해에는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 더욱 공을 들이고 공부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고 애민하기는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 초심이 되고 종교인들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본연의 초심이 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아니한 군주를 우리는 성군이라고 하고 초심을 잃은

군주를 폭군이라고 합니다. 모든 계획 중에서 마음 다스리는 계획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는 신년을 당하여 선현의 시 한편을 소개해 주기를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處世柔爲貴)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나라(剛強是禍基).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發言常欲訥) 일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행하라(臨事當如痴)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急地向尙緩)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아라(安時不忘危). 일생을 이 글대로 살아간다면(一生從此諒)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부니라(眞個好男兒).라”는 말씀입니다.

새해 벽두에 초심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의 마음으로 새롭게 새해를 설계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애민하기는 마음으로 초심을 실천하는 한 해 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열린 마음, 유한 마음으로 천하를 한 집안 삼고 우주를 한 가족 삼는 원숭이 해 되기를 심축합시다.

기 고



오승준
광주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지원정책은 결혼이주증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인권상황은 국제인권 감시 기구들의 지속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외국인(175만 명)과 다문화 가정(82만여명)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족해체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건수는 9800건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는 5년(2010~2014년)동안 매년 평균 1만760건에 이르고 있다. 광주의 다문화 가정(5540가정)도 매년 200건 이상이 이혼하고 있다.

그동안 이혼의 사유들은 성격차이, 경제문제, 문화·생활방식·가치관 차이, 배

인권침해와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위기

우자의 부정, 가족 간의 불화, 폭력, 자녀 교육·행동 등이 주로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가족·부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오해로부터 오는 갈등이 많다. 인권침해의 유형도 변하고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단순한 폭행에서부터 폭언, 성학대, 남편의 알코올 중독, 정신적 형태, 취업 착취 등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주여성의 서투른 한국말 등의 문화적 격차, 일방적 이혼, 한국 체류연장 거부 등의 지능형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 법적 제도나 다문화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은 결혼 한지 3년 이내가 가장 많고, 나이 차이가 클수록, 도시보다 농촌일수록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이혼 결정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혼을 고려하는 다문화가정 대부분의 경제적 빈곤 수준이 심각했다. 다문화 가족들이 여전히 낮은 경제 소득 수준과 높은 이혼율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문화 사

회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필자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 시댁가족들과 남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남편에 대한 교육은 법무부가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제결혼 폐단과 피해, 대처방법 등만을 실시하고 있어 몇 시간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작 남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도 이에 시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편견 개선 교육, 정서교육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의 정서와 문화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결혼이주여성 상대국의 문화 학습과 인식, 그리고 서로 문화 이해를 통해 건강한 다문화가정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상호인정에 의한 소통인 상호문화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인권교육은 일반 시민에게도 일단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상시의 인권보장·인권평등 등 인권 교육이나 사상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외국인 차별 사상을 버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고 평등하게 공동체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 갈수록 있도록 공

동체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꾸러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조건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 관련 사회권, 사회적 안전망, 교육권 등의 개선과 더불어 모든 생활이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이 생활 속의 내면화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사몰입, 가사 시간 투자와 노력, 남편의 가정몰입, 남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의사소통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정의 생존과 복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의 관점에서 광주지역 다문화가정을 관리한다면, 이혼과 이탈이 억제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상황이며, 현재 결혼이주 관련 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가족이 해체된 이후의 개인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기로 본다.

社 說

우려했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하려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광주시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유치 단계에서 정부 문서 위조 논란과 국비 지원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터라 성공 개최까지는 우려도 많고 속제도 많다.

광주시는 2019년 7~8월에 열릴 대회에 맞춰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최근 구성했다. 지원단은 6월까지 조직위를, 하반기에 사무국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노후우 축적을 위해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에서 전국 규모 수영대회도 개최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문 수영 선수가 참가하는 월드챔피언십(6000명)과 동호인을 위한 마스터스선수권대회(1만 2000명)로 나눠 진행되는 매머드 국제 행사다. 유치 결정 당시 예산은 1149억 원이었지만, 2015 유니버시아드가 열렸던 남부대학교 수영장에 대회 규격에 맞도록 가변 좌석을 갖춘 임시 수조를 설치하는 데만 55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총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저비용 고효율’ 유니버시아드를 치른 바 있는 광주시는 조직위를 최소화하고 월드챔피언십과 마스터스대회 중 복을 최대한 피해 속소난을 덜기로 했다. 임시 수조를 설치하려는 것도 알뜰 대회 전략의 일환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재정 형편은 빠듯하다. 이미 국제수영연맹에 예약금 22억 원, 개최권료 88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지급한 광주시는 다른 국제대회 전례를 토대로 전체 예산에서 최소 30~40%는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회는 한때 정부의 지원 불가 방침으로 포기까지 검토했다가 가까스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되살아났다. 경비 절약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부응해 정부 또한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회 타당성을 인정하고 국비 지원을 결정할 정부 방침에 따라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그에 따른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속도 내야 할 때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통체계와 문화시설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과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사안들이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20일 현재까지 논의된 정주 여건 개선 건의 사항은 모두 34건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이 교통 관련 분야였으며 안전·환경(8건), 문화·체육(5건), 교육(3건), 기타(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나주시는 물론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경찰서 등과 연관된 것으로, 현재까지 완료 19건, 수용 및 정상 추진 8건, 검토 및 협의 중 3건, 수용 곤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교통 분야의 건의 사항

을 보면 석전 교차로(빛가람로) 진출입로 확장, 공용 주차시설 부족, 택시·대리운전 요금 적정화, 시외버스 노선 및 편수 다양화, 나주 시내~혁신도시 간 시내버스 증차 등이다. 하지만 특히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문제다. 인구 1만 2000명이라는 작은 도시를 제외하면 외지 전입자가 전체의 81%나 된다. 이처럼 도시 전입은 늘고 있어도 가족 동반 이주율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23%로 저조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협의회에 접수된 건의 사항 이외에 도서관 추가 설치, 상업지역 축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나주시와 전남도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이 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정주 여건 개선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곤란하다. 쾌적한 거주환경이 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無 等 鼓

독일에선 ‘작전:마지막 기회’(Operation Last Chance)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버스 승강장이나 광장 등에 붙어 있는 이 포스터에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나치 전범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일부 전범들은 지금도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 이들 전범을 법정에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2만 5000유로 (3300여

크의 가족이 감금됐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당시 의무병으로 일했던 95세 노인을 독일 정부가 다음 달 법정에 세우기로 한 것이 좋은 예다. 검찰은 이 노인의 혐의에 대해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처형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유대인의 처형에 개입했고, 처형을 촉진한 중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쟁범죄는 극단적인 상황이나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작전:마지막 기회’

광기처럼, 당시로서는 당연히 보였던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는 관계없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그리고 스스로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독일 사회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과 합의했으며 이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묻지 않고 처벌받은 독일과는 정반대의 자세인 셈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경기도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